

# '지역문화지수' 85개 郡 중 해남 3위·영암 5위

문화부·문화관광연구원 158개 기초 시·군 조사

전남 시 단위지역 중에서는 순천·목포·여수 順  
문화예산 전국 평균 못미쳐... 학예사 수 목포 1위

해남과 영암이 전국 85개 군 단위 지역 중 지역문화지수(Z-Score)가 각각 3번째와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지역의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광역도 소재 158개 기초 시·군(광역시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지수는 지역별 문화 수준 및 문화발전 단계를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화정책,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 인프라, 문화향유 및 복지 등 6개 분야 38개 시범 지표를 조사해 합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남의 지역문화지수는 0.121로 군 단위지역에서 3번째로 높으며, 영암은 0.084로 5번째로 높았다.

영암은 전국 군 단위지역에서는 강원 인제와 함께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 조사됐다. 영암 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출범했으며

### ■전국 지역 문화 지수 상위 지자체

시 단위 지역	순위	군 단위 지역	순위
성남	1	청원	1
과천	2	양평	2
용인	3	해남	3
수원	4	거창	4
창원	5	영암	5
전주	6	영월	6
고양	7	증평	7
청주	8	고창	8
공주	9	남해	9
원주	10	하동	10

영암왕인국화축제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해남지역의 지난 2011년 예산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은 2.32%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영암(3.71%)은 물론 전국 평균(2.6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의 예산 비율은 53.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해남은 문화정책 예산 비율이 9.1%로 영암에 이어 전국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전남지역에서 문화정책 예산 비율이 3%를 넘는 지자체는 해남, 구례, 영암, 장흥, 곡성,



전국 군 단위지역 중 지역문화지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영암은 강원 인제와 함께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 문화재단은 영암왕인국화축제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흥, 보성에 불과했다.

한편 전남 시 단위지역 중에서는 순천의 지역문화지수가 0.496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0.389), 여수(0.190), 나주(0.025)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남 시 단위지역은 전국(73개 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국 시 단위지역에서는 성남이 1.256으로 군 단위지역에서는 청원이 0.241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눈길을 끄는 통계도 있다. 지자체 정규 학예사는 목포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인력이 1.67명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목포는 1년 평균 전시장 가동일수에서도 363일로 전국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역문화지수가 0 이상으로 나타난 시군은 비교적 지역문화가 안정적으로 구축 및 확산·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해남과 영암, 순천, 나주, 목포, 여수 등 6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문화지수가 0 또는 -로 나타나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남지역 지자체가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는 구축하고 있지만 문화 활동, 문화향유, 복지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문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지역문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지표를 만들어 조사했다"며 "첫 조사인 만큼 전체 상위 10위를 제외한 지자체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올해 조사부터는 대상을 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예술, 생활속으로 들어오다

대담미술관, 내달 23일까지 '담음, 백중백'전

대담미술관은 다음달 23일까지 생활 속 예술을 선보이는 '담음, 백중백'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을 휴과 함께한 라기환, 신창희, 이영호, 인현식, 마리가나 코다 등 공예자가 5명의 도자기와 유리공예 40여점이 전시된다.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지닌 작품들로 흰색에 대한 전통적인 향수와 색의 찬란함으로 각기 다른 빛을 자아낸다.

백중백(White in White)은 설백색, 유백색, 청백색, 회백색 등 작품에 따라 표현되는 비슷한 듯 다른 하얀 색의 향연을 말한다.

라기환씨는 단정한 조형미와 극도의 단순함을 느끼게 하는 백자를, 신창희씨는 자기의 곡선을 따라 다채로운 색의 선들이 울동감을 선사하는 향아리 작품을 선보인다.

이영호씨는 여운과 단아함이 돋보이는 다기를, 인현식씨는 한국적 감성을 표현한 백색 다기를 전시한다.

비정형적인 사물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찬란한 빛의 생동감을 유리공예에 표현한 일본 작가 마리가나 코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381-008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영호 작 '백자다기 물레성형'

## 시립미술관 '인문학으로 문화읽기'

문순태씨 '우리시대 고향의 의미' 26일 첫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좌인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올해 첫 강좌가 오는 26일 상록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첫 강좌에서는 소설 '타오르는 강'의 작가 문순태씨가 '우리 시대 고향의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미술관은 첫 강좌에 앞서 지난해 인문학 강좌 자료집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 강좌는 다음달 23일 '미술과 세계일주 여행'(유재길 홍익대 교수)을 주제로 열리며 ▲원형화자의 비탄(천카이민 중국 중앙미술학원 명예교수·5월30일) ▲달빛을 품은 신의 세계(장주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6월25일) 순으로 상반기 강좌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현대미술의 현상과 최근 경향(이건수 월간미술편집장·7월23일) ▲팝아트, 예리한 양날의 칼(반이정 미술비평가·8월27일) ▲호모루멘스, 예술의 힘으로 살기



문순태



유지나



이태호

(유지나 동국대 교수·9월24일) ▲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10월22일)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이태호 명지대 교수·11월26일) 순으로 열린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613-713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아리랑 고수들, 진도에서 한판 축제

유네스코 등재 기념, 27일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아리랑 전문가들이 진도에서 한판 난장을 벌인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진도아리랑' 경연대회가 오는 27일 진도 아리랑마을(진도군 임회면 귀성리)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진도아리랑'을 소재로 소리·노래·춤·기아·타악 등 장르에 관계 없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전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아리랑 경연 축제를 펼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연은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에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후원한다. 일반부와 학생부(초·중·고)로 나뉘어 실시되며, 접수는 26일까지 극단 갯돌에서 받는다.

경연대회와 함께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식이 열리며 전남도립극단, 진도군립예술단, 극단 갯돌, 진도소포리민속예술단과 유명 국악인이 참여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또 28일과 29일에는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남도민속학회(회장 서해숙) 주관으로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진도아리랑의 보존과 진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학술회의는 임훈희 중앙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 위원장, 나경수 전남대 교수(전 한국민속학회회장), 이보람(한국고음악학회회장), 서연호(고려대 명예교수)씨 등 국내외 학자 40여명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1-243-9786. /이보람 boram@

## 편안하게 걸으며 역사·문화 체험

진도 아리랑길 '문화생태탐방로' 선정

진도 아리랑길이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8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8곳은 진도 아리랑길을 포함해 성주 가야길, 진주 비단길, 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 마포 난지생명길, 백령 구경길, 포천 한탄강 어울길, 가거도 셋개제길이다.

진도 아리랑길은 진도읍을 출발해 삼별초 기념공원과 운림에

술촌에 다다르는 길이다. 운림산방과 도선국사가 1200년 전에 창건했다는 생계사, 천연기념물인 생계사 활엽수림을 만날 수 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문화부가 1999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길 가운데 도보 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장성 축령산 숲길, 담양 수목길, 신안 증도 모실길, 해남 팥밭길 포함돼 있다.

/이보람 bora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물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